

# 영아 대상 북스타트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연구

- 천안시 문헌정보관을 중심으로 -

A Qualitative Research on the Bookstart for Infants and Toddlers:  
Focusing on the Bookstart of Public Library in Cheonan

구 수 연(Su-Yeon Gu)\*

최 예 린(Ye-Lin Choi)\*\*

## < 목 차 >

I. 서론	3. 활동 내용
II. 연구 방법	4. 영아 대상 북스타트 프로그램의 특성
1. 연구 대상	IV. 영아 대상 북스타트 프로그램이 고려해야 할 문제
2. 연구 절차	1. 프로그램의 문제
3. 연구 문제	2. 운영의 문제
III. 영아 대상 북스타트 프로그램의 이용실태	V. 결론
1. 참여 동기	
2. 참여인력	

## 초 록

영아 대상 북스타트 프로그램은 실험적인 시행과정에 있다. 본 연구는 천안시의 영아 대상 북스타트 프로그램의 이용과 운영 실태를 질적으로 연구하여, 성공적인 영아 대상 북스타트 프로그램을 위한 필요조건들과 개선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영아 대상 북스타트 참여 인력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인력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강사로 구성되며, 이들에게 영아 대상 북스타트는 육아 지원자 역할에 대한 만족감, 사회적 참여 기회의 확대, 전문적 능력의 개발의 장이 된다. 영아 대상 북스타트 프로그램의 활동 내용은 주마다 각각의 강사가 구성하는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되었으며, 프로그램의 특성은 영아들과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의 제공처, 육아정보교류의 장, 교육의 장으로서 규정될 수 있다. 영아 대상 북스타트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하여 프로그램 자체에 관해서는 프로그램의 취지에 대한 영아 보호자와 의사 결정자들의 북스타트에 대한 이해 필요, 놀이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의 제공, 북스타트의 정체성의 문제 등이 있으며, 운영에 있어서 참여 대상자의 제한, 참여 기간, 참여 인원, 인력과 예산의 문제의 측면에서 지적되었다.

키워드: 영아, 북스타트, 도서관

## ABSTRACT

The bookstart program for infants and toddlers is still in experimental progress. From this qualitative research that contains the both administration and utilization of the bookstart program at the Cheonan public library, some necessities for improvement were found to be the more effective program. The administration staffs of program consist of the supporting team and the instructional team. This program gives the meaningful experience to staffs such as the satisfaction as supporters of caring infants and toddlers, extension of social participation, and developing professionalism. The characteristic (purpose) of bookstart program for infants and toddlers could be categorized as three: offering a place to plays with other infants and toddlers, opportunities to exchange practical information, and chances to have educational support. To be more effective program, the difficulties and administrative problems of the program should be solved.

Keywords: Infants and Toddlers, Bookstart, Public Library

\* 군산대학교 생활과학부 아동가족학전공 교수(sue@kunsan.ac.kr)(제1저자)

\*\* 백석문화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사(kidworld@paran.com)(공동저자)

• 접수일: 2009년 2월 20일 • 최초심사일: 2009년 2월 25일 • 최종심사일: 2009년 3월 21일

## I. 서론

전통적으로 도서관은 자료보존기능과 자료제공기능이었으나, 현대에는 각종 정보 매체의 보급으로 인해 정보와 이용자의 연결이라는 하드웨어적 기능이 약화되고 지역사회의 주민에게 문화적, 교육적 활동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적 기능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sup>1)</sup>

Himmel과 Wilson<sup>2)</sup>은 공공도서관이 지역공동체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독서능력함양, 문화적 자각, 공식적 학습활동지원, 도서관 정보 활용, 평생교육과 같은 공공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도서관은 정보의 제공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해야하는 사회 교육적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발맞춰 도서관은 지역공동체의 욕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있으며, 영유아들을 위한 도서관 프로그램 마련도 다양한 방법으로 도서관을 활용하려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책을 바탕으로 영유아들은 어린 시기부터 책과 친해질 뿐만 아니라, 책을 매개로 다양한 활동을 접하고, 도서관이라는 기관을 중심으로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영유아들의 도서관 이용은 학부모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도서관 이용 프로그램은 부모와 영유아에게 모두 혜택을 가져 온다.<sup>3)</sup> 왜냐하면 어린이 도서관에서 부모들이 책을 선택하거나, 어린이들이 책을 읽을 때 부모들의 개입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며,<sup>4)</sup> 유아가 어머니와 도서관을 방문함으로써 유아와 어머니는 책을 읽고 찾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sup>5)</sup> 어린시기부터 도서관을 이용하는 습관은 유아들이 책과 가까워지게 할 뿐 만 아니라, 도서관 프로그램 참가 후 부모들은 아이들이 선호와, 아이들의 이해 정도와 발달에 대한 것을 더 잘 알게 된다.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하여 책을 매개로 도서관과 주변의 다양한 성인들을 연결하는 사업은 세계 각국에서 특색 있는 도서관 프로그램으로 정착되고 있다. 보스턴 주변의 공공도서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스토리 타임(story time)은 영유아들로 하여금 사서와 친근한 관계를 맺게 해주며,<sup>6)</sup>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귀로 읽기'는 책 읽어 주는 대모가(Reading Godmother)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 주는 것을 통해 아동들은 부모 외의 다른 성인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한다. 영국의

1) 임형연, "아동교육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역할: 미국보스턴부면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관찰조사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5권, 제2호(2004. 6), pp.393-414.

2) Ethel Himmel & William James Wilson, *Planning for Results: A Public Library Transformational Process* (Chicago : ALA, 1998).

3) Heath, S. B., *Ways with words*(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4) 김진숙, 부모의 어린이 도서관 이용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 2007).

5) Dail Alanna Rochelle Kin, *An investigation of mother-child visits to the public library*(Nashville: Vanderbilt university, 2004).

6) 임영현, 전계논문, pp.405-406.

Chatterbooks에서는 아동끼리의 독서 토론을 통해 다른 아동의 생각을 들어보고 이를 통해 관계를 맺으며, 사서, 보조직원, 자원 봉사자들 간의 월레모임에서는 도서관 종사자들 간의 관계 형성을 맺게 한다. 미국에서는 조부모와 책읽기(Grandparents and Book)를 통하여 노인층과 아동들이 연계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sup>7)</sup>

북스타트는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라는 의미로 아이들이 어릴 때 책 선물을 받아 책을 사랑하고 책 읽는 즐거움을 가지게 하자는 사회적 육아 지원 운동이다. 북스타트 운동은 전직 여교사이자 도서관 사서였던 Wendy Cooling의 제안으로 1992년 영국에서 처음 시작하였다. 현재 한국의 북스타트는 북스타트코리아와 지방자치단체가 펼치는 사회적 육아지원 프로그램으로, 비영리 민간단체인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과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이 주최하여 한국의 북스타트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북스타트를 통하여 영유아와 부모는 그림책을 매개로 풍요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대화를 통해서 길러지는 소중한 인간적 능력들을 심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북스타트의 역할이다.<sup>8)</sup> 영유아들이 책을 장난감 삼아 친숙하게 놀 때, 책을 통해 부모와 자식은 서로 친밀감을 느끼게 되고, 대화의 장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어 아이들과 부모와의 관계가 더욱 돈독하게 결합 된다.<sup>9)</sup>

North Tyneside the Children and Young People's Library Service에서 실시한 'Babies Need Books' 프로그램은 1개월부터 4세에 이르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들은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는 것과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sup>10)</sup>

감각운동기와 전조작기에 있는 영유아들에게 부모의 중재는 후에 교육적인 성취를 획득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는데, 무엇보다도 북스타트는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이뤄지는 것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공통의 경험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부모 자녀 관계에 기여하게 된다. Wittner와 Petersen<sup>11)</sup>은 '관계중심 모델'에서 아이들에게 최선의 정신적 건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관계중심과 상호작용의 네트워크를 중요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북스타트 프로그램은 양육자가 집에서 영유아만을 상대로 책을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도 새로운 사회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영유아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부모의 사회적 관계망은 정서적·도구적 지지

7) 윤정옥, "공공도서관의 어린이 독서진흥활동: 다른 나라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 38권, 제2호(2007. 6), pp.393-414.  
 8) 북스타트코리아, 북스타트 프로그램안내 - 아가는 책을 좋아해요(서울 : 보림출판사, 2004).  
 9) 이수진, 한국 북스타트 운동에 관한 연구: 부산 북스타트 운동을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2004).  
 10) Elaine Hall, "Babies, books and 'impact': problems and possibilities in the evaluation of a bookstart project," *Educational Review*, Vol.53, No.1(2001), pp57-64.  
 11) D. S. Wittmer and S. H Petersen, *Infant and toddler development and responsive program planning*. (NewYork : Pearson, 2005).

를 해주는 역할을 하며, 자녀양육에 대한 조언과 기타 정보적 지원을 해주고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준다.<sup>12)</sup> 어머니가 갖는 사회적 관계망의 특성은 직접적으로는 아동의 정서지능에 대해 영향을 미치며, 간접적으로는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에서도 알 수 있다.<sup>13)</sup>

또한 영아는 북스타트 프로그램을 통해 또래를 인식하게 된다. 사회화 경험의 중요한 과업중의 하나는 친구 만들기이다. 친구 사귀는 것은 이미 완성된 사회적 세상과 연결하는 중요한 과업으로 또래 관계는 유아에게 중요하며, 친구를 사귀는 성공의 기초는 생의 처음 삼년에 좌우된다.<sup>14)</sup> 영아의 자아가 발달함에 따라 주변의 사람을 탐색하고, 특히 자신과 비슷한 또래들과 상호작용을 함으로 그들의 사회성은 발달 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 가정에서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1세 영아들은 북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또래 친구를 만날 수 있다. 북스타트는 영아기 중요한 과업중의 하나인 친구 사귀기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된다.

어린이 북스타트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을 지속적이고 누적적으로 우수하게 만드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sup>15)</sup> 이는 어린이들이 책을 열심히 읽도록 하는데 있어 3세경에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갖는다는 것과 도서관의 회원이 된다는 것이 두 가지 중요한 핵심 경험으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sup>16)</sup> 영유아기에 도서 경험이 일생의 독서 습관과 독서를 통한 학습 능력의 신장에 기여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북스타트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증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조기 학습 프로그램처럼 북스타트는 아주 어린시기부터 학습하는 습관을 길러주고자 하는 교육적인 발달을 촉진하는데 있어 효과가 있다.

어머니들은 책에 대해 즐거움을 갖고, 정보를 얻으며, 자녀에게 책임감과 문해를 가르치기 위해 도서관을 방문 한다.<sup>17)</sup> 또한 교육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하여 어머니는 자녀에 대한 육아정보, 놀이를 배우고, 비슷한 또래 어머니들과 만남을 통해 육아 정보를 교환한다.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북스타트 프로그램은 어머니들에게 영아에 대한 지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자극을 준다. 북스타트 프로그램 강사들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상호작용하며,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기 때문에 북스타트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자녀 양육에 대한 질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다. 더불어 영유아들에게는 실질적인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영유아들은 다양한 놀이를 체험하게 된다.

12) 김현주, 손은경, 신혜영, 현장중심 부모교육 이론과 실제(서울 : 양서원, 2000).

13) 박영애, 원효중, "어머니의 사회 관계망, 자녀에 대한 기대와 아동의 자아 존중감 및 정서 지능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제12권, 제5호(2003), pp.713-735.

14) K, Albrecht and L. G. Miller, *Infant & toddler development*(Louisville : Gryphon House, Inc, 2001).

15) Wade, B & Moore, M., "An early start with books: Literacy and mathematical evidence from a longitudinal study," *Educational Review*, Vol.50, No.2(1998), pp.130-145.

16) Weinberger, J., "Longitudinal study of literacy," *Journal of Research in Reading*, Vol.19, No.1(1996), pp.14-25.

17) Dail Alanna Rochelle Kin, *op. cit.*

도서관에서 어머니와 자녀는 그림책을 매개로 책 보기 경험을 하고, 또래 영아들을 만나고 관찰하면서 대인관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아들은 읽기와 여러 가지 놀이를 경험하고 바람직한 사회화 경험을 하게 된다.<sup>18)</sup>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에서 마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혜택을 본 학부모들은 도서관이 아이와 함께 '재미있게 놀다오는' 곳으로 인식하고, 도서관이 항상 조용하기만 한 곳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책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sup>19)</sup> 따라서 취학 전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도서관은 취학 전 영유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공공기관이다.

그러나 어린이 도서관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들은 어린이가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있어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 들려주기 프로그램은 취학 전 어린이들의 성장, 발달 단계에 따라 반을 분리 운영해야 하며, 프로그램 전용 공간 등 도서관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취학 전 어린이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설치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sup>20)</sup>

어린이 도서관 이용시 학부모와 어린이들은 책의 자리를 잘 몰라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으며,<sup>21)</sup> 아동을 위한 독서 지도 예산이 10% 미만으로 전체 예산 중 현저히 낮기 때문에 영유아 대상 독서지도 프로그램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전체 어린이도서관 중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적은 실정이다.<sup>22)</sup>

운영에 있어서도 어린이 도서관 운영에 있어 시·도 차원의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다양한 어린이 문화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으며, 어린이 열람실에 도서 전문 사서가 배치되기를 요구하고 있다.<sup>23)</sup> 또한 어린이 도서관이 놀이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놀이와 독서를 조화시키는 문제와 공간 크기 문제들이 지적되었다.<sup>24)</sup>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영유아들을 위한 도서관 활용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혜택과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해결되어야 될 과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적 육아지원정책의 하나로써 행하고 있는 영아를 위한 북스타트 프로그램을 탐색하고, 영아 대상 북스타트 프로그램의 실태와 참여자들의 경험, 요구를 알아봄으로써 보다 수요자 중심의 북스타트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18) Laurice, J., *Reading - Encouraging Positive Attitudes : Strategies for Parents and Teacher*(Bethesda : 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 Psychologists, 2004).

19) 전창호, "지역사회를 위한 대학도서관의 어린이서비스," *도서관*, 제58권, 제3호(2003. 가을호), pp.27-52.

20) 정혜경, 김현희 "한국과 미국 공공도서관의 취학 전 어린이를 위한 이야기 들려주기 프로그램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13권, 제1호(2005. 3), pp.295-320.

21) 김진숙, 전계논문.

22) 송은경, *학령전 아동을 위한 어린이도서관의 독서지도 활성화 연구*(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2006).

23) 강보경, *학부모가 지각한 유아의 어린이도서관 이용실태와 부모의 요구도 조사*(석사학위논문, 성균관 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24) 전창호, 전계논문.

## 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08년 4월 16일부터 2008년 9월 24일까지 천안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북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한, 생후 12개월~24개월의 영아와 부모로 대상을 선정하였다. 천안시의 북스타트 프로그램은 문헌정보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북스타트 프로그램 과정은, 한 달 과정으로 한 달 동안 4회로 구성되는데, 1회 책 놀이, 2회 뮤직가튼(음률과 악기활동), 3회 아가랑 함께하는 언어활동, 4회 식스센스(오감발달과 감성놀이) 과정으로 구성되어있다. 대상은 3개월 단위로 바뀌는데 3월~6월(18개월 이상~24개월 미만), 7월~10월(12개월 이상~18개월 미만), 11월~12월(6개월 이상~12개월 미만)이다. 다시 말해, 각 월령에 속한 영아는 같은 프로그램에 3번 참가할 수 있다.

이러한 영아 대상 북스타트 참여자들 중에 4월부터 10월까지 한번 이상 참여한 영아와 어머니는 각각 231명이었으며 이 중 한 달 프로그램을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어머니(할머니 포함)와 영아는 각각 49명이었다. 그 중 연구 면담에 허락한 어머니는 총 37명이었다. 자원봉사자, 담당자(사서), 정보관 부장과 같은 북스타트 관계자와 북스타트 강사 등을 연구 참여자로 포함하였다.

### 2. 연구 절차

2007년 10월 2일 천안시에서 북스타트 선포식을 가졌다. 선포식은 축제 분위기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였으며, 연구자는 이 날 북스타트 선포식 강연을 맡게 된 교수님을 만나기 위해 행사장을 방문하였으며, 교수님의 소개로 관계자와 인사를 나누게 되었다. 평소 영아들의 책 보기에 관심이 있던 연구자는 연구 의도를 밝히고, 연구를 시행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북스타트 프로그램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였고 '북스타트 데이'라 명칭 하여 부모들을 위한 부모교육과 일주일에 한 번씩 동화구연을 해주었으나, 2008년 3월부터 북스타트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진행하게 되었고,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는 담당자를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었다.

연구자 중 한 명은 본 프로그램에 참여관찰을 하였으며, 관찰자인 동시에 자원 봉사자의 역할을 함께 병행하였다. 처음에는 순수 관찰만 하였지만, 연구가 진행 되는 동안에 어머니와 영아를 도와 주는 일이 생기고, 북스타트 관계자가 바뀌면서 관계자로부터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면서 협력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한 자료수집 방법은 크게 면담과 비디오 촬영에 의한 참여 관찰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비디오를 설치하여 영아들과 어머니들을 녹화하였으며, 이를 전사

하였다. 면담은 현장에서 제공하는 양육자와 영아를 위해 한 달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모두 마치는 날 하였다. 이 외에 북스타트를 주최하는 문헌정보관에서 어머니를 대상으로 배포한 설문지와 인쇄물, 소책자를 포함하였으며, 북스타트 홈페이지에 있는 북스타트 회원 나눔 방에 있는 글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참여관찰 자료와 면담 자료를 통해 연구 문제가 생성되었으며, 연구 결과는 연구 문제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되고 해석되었다. 연구 결과는 북스타트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와 요구 내용으로 수집, 분석되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8년 4월 28일부터 2009년 2월 5일까지이다.

### 3. 연구 문제

본 연구는 북스타트 프로그램의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북스타트에 참여한 영아와 부모들, 북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자와 강사를 대상으로 북스타트 프로그램의 이용과 운영에 대해 알아본 질적 연구이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 대상 북스타트 프로그램의 이용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영아 대상 북스타트 프로그램에 대하여 이용자와 운영자는 어떤 요구를 가지고 있는가?

## Ⅲ. 영아 대상 북스타트 프로그램의 이용실태

북스타트 프로그램의 이용실태는 참여 동기와 방법, 참여 인력, 활동 내용, 영아 대상 북스타트 프로그램의 특성으로 나누어 기술하고자 한다.

### 1. 참여 동기

영아의 보호자들은 북스타트 프로그램이 영아들에게 교육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북스타트에 등록하였다. 참여 동기나 방법은 다양하지만, 보호자들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취득했다기보다는 정보가 보호자들의 동선 안에 배치됨으로써 정보를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 가. 관련 기관(보건소에서)에서 정보 입수

천안에서 영아 대상 북스타트는 보건소에서 북스타트 꾸러미를 전달하고 진행되었다. 본 정보관에서 영아 대상 북스타트를 시작한지가 1년 남짓하다. 따라서 홍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북스타트 프로그램을 경험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입소문으로 알려졌으며, 영아를 돌보는 보호자들의 교

8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0권 제1호)

육적인 요구에 북스타트의 내용이 일부 부합되었다.

이사 와서 여기 아는 선생님이 같이 가자고 해서... 원래는 여기 말고 보건소에서 하는 북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거기에 참여를 하면서 여기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오게 되었어요.

(2008년 2월 7일 나영이 어머니와의 면담)

보건소에서 안내 용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참석하게 되었어요.

(2008년 10월 22일 종구 어머니와의 면담)

우린 할머니니까 이런 것 모르잖아요. 이런 젊은 엄마들이 하는 프로그램. 가까이 있으면서 이런 것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문화센터 다니니까 엄마들의 입 소문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줄 알았어요. ... 와 봤더니 너무 좋은 거야. 프로그램도 선생님도 좋고.

(2008년 6월 18일 손녀를 데리고 온 할머니와의 면담)

나. 회원에 대한 문자로

이미 문헌정보관의 북스타트에 가입한 부모들에게 문자나 인터넷 공지가 전달되면 그를 보고 오는 학부모들이 있다.

문자가 왔지요. 제가 북스타트 회원에 가입을 해서요. 인터넷 들어가서 확인하고 인터넷으로 가입을 했는데..

(2008년 7월 2일 수혜 어머니와의 면담)

다. 안내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른 목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다가 비치된 자료를 보고 이용하게 된 사례도 있다.

원래 도서관에 다니다가 프로그램 안내를 보고 다니게 되었어요.

(2008년 7월 2일 은수 어머니와의 면담)

라. 인터넷 공지를 보고

정보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된 부분을 통하여 알고 등록하는 경우도 있다.

홈페이지를 보고 신청했거든요. 이렇게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2008년 9월 24일 동수 어머니와의 면담)



## 2. 참여인력

영아 대상 북스타트 프로그램은 책을 매개로 하는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스타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력은 프로그램 운영에 직접 참여하여 학부모들과 영아들을 지도하고 활동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강사들과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인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편의상 이들의 역할을 프로그램 운영인력과 프로그램 강사로 구분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프로그램 운영에 관여하는 관계자들의 역할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 프로그램 참여 인력의 역할

관계자		역 할
운영인력	담당자(사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스타트 전반적인 운영 담당</li> <li>• 북스타트 강사 섭외</li> <li>• 북스타트 관련 행사 계획</li> <li>• 북스타트와 관련된 행사 어머니들에게 공지</li> <li>• 북스타트 프로그램 체계 구성</li> </ul>
	문헌정보관 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스타트 교류 확대와 협력 기관 구성</li> <li>• 지자체와 협력 도모</li> <li>• 북스타트 대외적인 홍보</li> <li>• 북스타트 활성을 위한 예산 취득</li> </ul>
	자원봉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주 강사들의 수업 도와주기</li> <li>• 어머니들과 영아들의 상호작용 도와주기</li> <li>• 주변 정리</li> <li>• 행사 도우미</li> </ul>
참여강사	책 놀이 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아에게 적합한 그림책 선정</li> <li>• 그림책과 관련된 놀이하기</li> <li>• 영아들 정서 발달을 위한 활동하기(예:신문지 찢기, 밀가루 반죽 등)</li> <li>• 손 유희 가르치기</li> </ul>
	뮤직가튼 강사 <sup>25)</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악에 맞추어 노래하기, 춤추기</li> <li>• 다양한 소품을 활용하여 음악적 체험하기</li> <li>• 노래에 맞추어 친구들과 인사하기</li> <li>• 노래에 맞추어 박자 맞추기</li> </ul>
	언어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아 언어 발달에 대한 강의</li> <li>• 전반적인 영아 특성에 관한 강의</li> <li>• 어머니와 영아와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놀이하기</li> <li>• 영아와 어머니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방법 소개</li> </ul>
	식스센스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아들의 감각을 증진시키는 놀이(예: 비누거품, 큰 보자기)</li> <li>• 다양한 악기 체험 경험(예: 다양한 마라카스, 종 등)</li> <li>• 어머니와 함께 하는 신체 놀이</li> </ul>

25) 뮤직가튼이란(Musikgarten)이란? 음악교육적인 면을 부분적으로 지도하기보다는 유아들의 전인적인 면을 고려하여 모든 것을 동시에 종합적으로 가르치는 친다는 철학을 전제로 한다. 음악활동을 통해 영 유아기에 모든 발달이 고루 발달 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으로 독일 로나 하이거에 의해 창설되었다. 뮤직가튼은 4단계로 구성되었는데, 북스타트에 해당하는 영아들은 1단계로 노래하기, 춤추기, 활동하기, 손뼉치기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활동한다.

북스타트 프로그램 참여 인력들은 영아 대상 프로그램의 참여 경험을 통해 영아 대상 북스타트 프로그램의 특성을 알게 되고,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이들은 영아 대상 북스타트 프로그램의 의미를 형성하게 하였다.

#### 가. 육아 지원자 역할에 대한 만족감

북스타트에 참여하고 있는 강사진이나 운영진은 북스타트가 육아지원의 한 방편으로서 기능하며, 이러한 공익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작업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부심의 자신들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따라서 다르지만, 강사와 운영진은 주민들에게 양육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감을 느꼈다.

어머니들에게 영아 연령대 별로 영아 언어 발달이 그 시기가 어디까지인지 알려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없는데요, 기관에 안 다니는 아기들과 어머니들은 아기랑 상호작용하고 놀이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다섯 가지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려줄 수 있는 자극과 계기가 되어서 좋았어요.

(2009년 1월 28일 언어 강사와의 면담)

제가 이거 하면서 마지막 6-12개월 아이들이었는데 6개월-8개월 아이들이 제가 앞에서 책을 읽어주면 저를 뚫어져라 보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아이들이 집중 시간이 길어서 놀랐어요. 음률 있는 노래를 하면 집중하는 시간이 길었어요. 북스타트 프로그램하면서 좋은 점은 엄마들이 아기들하고 책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즐거워하면서 하는 것을 보고 보람을 느꼈어요. 특히 북스타트 플러스에서는 다문화 아이들에게 집에서 책을 읽어주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북스타트 프로그램이 어린 연령부터 하는 것에 의미가 있구나... 6개월 아이들이 음률을 할 때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고, 그 눈이 저를 쳐다보는데 감동했어요.

(2009년 1월 29일 책 놀이 강사와의 면담)

한편 이들은 프로그램의 내용이 부모들과 자녀와의 관계와 양육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즉 이론과 실재를 함께 전달했을 때 양육자들이 만족감을 나타내자, 구체적인 활동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였다.

예전에는 영아에 대해서 엄마들이 책을 읽어준다는 생각은 하지만, 잠자리라든지, 자신이 시간이 남았을 때 아이들에게 읽어주는 정도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냥 솔직히 엄마들은 다른 일 할 때 장난감만 그냥 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진짜 아이들한테 책하고 놀아주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 설문조사 할 때 그런 것을 많이 배웠다고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2008년 6월 18일 북스타트 담당자 1과의 면담)

자원 봉사자들 중에는 자녀들이 성장한 어머니들과 할머니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북스타트 프로그램에서 모성적 역할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아이를 양육한 경험을 활용하여 아이들과 관계된 일에 종사하며 아이들을 직접 돌보기도 하고, 그 부모들과 경험을 함께 나누었다.

이 일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은 북스타트 프로그램이 영아의 조기 교육과 부모의 양육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 프로그램이 효과적인 결과를 가질 수 있도록 자신들이 역할을 한다는 사회적 역할에 대한 만족감을 갖게 되었다.

어머니들이 막상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좋은 엄마가 되는지 모르잖아요. 여기 와서 어머님들이 많이 배워 가시고.. 저도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이지만, 나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으면서... 아이들 어머님을 보면서 제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드리고, 저한테도 많은 배움의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2008년 6월 4일 자원봉사자와의 면담)

#### 나. 사회적 참여 기회 확대

프로그램 운영자들은 직접적으로 지역주민과 접하면서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적용하면서 지역 주민의 특성과 요구에 부응하여 문헌정보관이 보다 주민과 가깝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강사들은 직접적으로 보호자와 영아들과 만나면서 책을 매개로 교류를 하며, 이러한 교류 속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인식과 재고를 하고, 개선된 강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참여 기회 확대는 자원봉사들에게 의미 있어 보였는데, 자원봉사자 할머니들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한다는 것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제가 원래 동화 구연 수업을 받았는데 우연히 자원봉사자를 하게 되어서 그때 (북스타트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우연히 하게 되어서 처음부터 시작 되었던 것 같아요. (중략) 아이들 만나서 하는 것 자체가 좋고, 이후로는 다문화 아이들을 보면서 더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2009년 1월 30일 자원봉사자와 전화 면담)

할머니들의 참여와 만족스런 역할수행은 북스타트 프로그램이 갖는 중요한 결실로 보인다. 도서관 관계자들도 북스타트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의 잠재력을 새롭게 발견하고, 이들의 역할에 대해 인식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자원 봉사자 중에는 나이 드신 할머니들도 있어요. 할머니들이 책도 아이들에게 읽어주시고... 강사도

도와주고... 그런 것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인데 할머니들이 오셔서 봉사해주고 하시니까 할머니봉사자들은 생각지 않은 기쁨이죠.

(2008년 5월 28일 문헌정보관 부장과의 면담)

#### 다. 전문적 능력 개발

북스타트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도서관이나 지역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천안시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북스타트 프로그램에는 언어 강사, 뮤직가든(musikgarten) 강사, 책 놀이 강사, 식스센스(six sense) 담당 강사가 참여하고 있다.

담당 강사들은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업을 보완, 수정하고, 이를 통해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북스타트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처음에는 힘들었죠. 제일 처음 와 가지고... 엄마도 있고, 아이들도 30명이 되잖아요, 그럼 60명이잖아요... 아, 애네들하고 내가 즐겁게 놀자 하고 생각을 하고 수업을 하니까 덜 힘들어요.(중략) 다음 기수는 6개월에서 12개월이잖아요. 제목을 거기는 온 몸으로 즐기는 책 놀이라고 잡았어요.

(2008년 7월 9일 책 놀이 강사와의 면담)

이들은 영아들의 각 월령 특성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고 그러한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면서 자신들의 전문성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짧은 시간동안에 언어와 관련되어 통합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었죠. 부모들의 언어가 바뀌면 아이들의 언어가 바뀌잖아요. 그런 것을 짧은 시간에 엄마들에게 가르쳐주는 방법에 대해 고민을 하는 게 저한테 도움이 되었어요.

(2009년 1월 29일 언어 강사와의 면담)

### 3. 활동 내용

위의 참여 인력들이 하는 역할에 따라 활동이 구성된다. 영아 대상 북스타트 프로그램은 매주 다른 강사들이 다른 활동으로 참여하는데 4기에 시행된 활동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표 2〉 4기 북스타트 프로그램의 내용

주	활동 내용
1주 (2008년 6월 11일)	<b>책 놀이 강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아들의 특성 강의</li> <li>• ‘달님 안녕’ 그림책 보면서 ‘눈은 어디 있나, 요기~’ 노래를 율동하며 부르기</li> <li>• ‘누기누가 잘자나’ 그림책 보면서 ‘달달 무슨 달’ 전래 동요를 부르면서 율동하기</li> <li>• 놀잇감 만들기: 마라카스(PT 병은 어머니들이 준비)</li> <li>• 그림책에서 ‘누기누가 잘자나’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마라카스 흔들기</li> <li>• 동물 그림 보여주면서 ‘안녕’이라는 말 따라하게 한 다음 ‘사과가 쿵’ 그림 책 보여주기</li> </ul>
2주 (2008년 6월 18일)	<b>뮤직가튼 강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래에 아기들 이름 붙이며 인사하기</li> <li>• 딸랑이 나누어 주고 딸랑이 가지고 놀기(위에서 아래에서 딸랑이로 엉덩이, 어깨, 등을 두드리기)</li> <li>• 음악에 맞춰 딸랑이 흔들기, 점프하기</li> <li>• 스카프 가지고 놀기(흔들기, 까꿍 놀이하기, 숨바꼭질)</li> <li>• 아기들을 엄마 무릎에 태워서 미끄럼 타기</li> </ul>
3주 (2008년 6월 25일)	<b>언어 강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아의 언어적 특징 특강</li> <li>• ‘곰 세 마리’ 노래 부르면서 ‘곰 세 마리’ 책 보여주기</li> <li>• 모양 나라 책(신문지에서 동그라미, 세모, 네모 모양을 오려서 종이에 붙이는 활동)</li> <li>• 풍선로켓, 풍선에 낙서하기, 풍선 잡아당기기</li> </ul>
4주 (2008년 7월 2일)	<b>식스센스(six sense) 강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래에 맞추어 율동하기(손을 잡고 오른쪽으로 빙빙 돌아라~)</li> <li>• 왈츠 음악에 맞추어 움직이기</li> <li>• 비눗방울 잡기</li> <li>• 마라카스 음악에 맞추어 동작을 하며 흔들기</li> <li>• 스카프 가지고 놀이하기</li> </ul>

#### 4. 영아 대상 북스타트 프로그램의 특성

보호자들과 참여인력의 면담을 통하여 영아 대상 북스타트 프로그램이 갖는 특성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유출할 수 있다.

##### 가. 아이와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제공원으로서의 북스타트

무엇보다도 보호자들은 자녀와 유익한 시간을 지내고 싶어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 지 잘 모르는 상황이었으나, 북스타트 프로그램에서 구체적인 놀이와 활동거리를 제공해 주어서 유익했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가장 좋은 점은 일단 아이랑 같이 여러 활동을 접하는 것이 좋고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것이 아이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2008년 7월 2일 선숙 어머니와의 면담)

아기가 (여기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노래와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집에서도 따라하고 말이 느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냥 가슴에 안고 볼 때 압전했는데, 요즘에는 동작이 더 표현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2008년 7월 2일 상민 어머니와의 면담)

#### 나. 육아 정보교류의 장으로서의 북스타트

북스타트를 중심으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면서 이들은 다른 어머니들과 만남을 통해 육아정보를 공유하고 양육을 통해 알게 된 실질적인 정보를 서로 교환하였다.

엄마들과 새로운 교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몰랐던 지식이요... 솔직히 육이를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정보를 받아가니까.. 인터넷으로 하는 정보랑 직접 듣는 정보랑은 다르잖아요, 그런 육아 방법이 라든가 제가 아이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었는데 제가 그 사고방식에 한정 되어있었는데, 수업을 듣고 하니까 더 확장이 되는 것 같아요.

(2008년 6월 4일 진희 어머니와의 면담)

특히 아이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다른 어머니와 관계망을 갖는 것은 아이를 양육하는 동안 어머니들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결해주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정에서 자녀들과 시간을 보낼 때 느끼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다른 어머니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이들에게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고맙죠, 엄마가 부지런하면 이런 행사가 있으면 자주 참석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엄마들이 애하고 집에 있는 것보다 짜증이 덜 나고, 애들도 친구를 보면서 엄마들도 서로 인사하고...

(2008년 9월 24일 영길 어머니와의 면담)

하지만 프로그램 기간 중 어머니들은 서로 간에 정보를 교환하며 관계를 맺지만, 그러한 관계의 형성이 추후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자원봉사자는 이러한 관계의 지속이 실패하는 이유로 프로그램의 기간이 짧은 것을 들었다.

기간이 길면 (친분이 생기는데) 친분이 생길만 하면 헤어지니까 '모이자' 이런 말 할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일반 프로그램도 12주 정도 해야 모임이 되는데, 얼굴 익히고 이러면 헤어지니까 아직 모여지는 것은 어렵네요.

(2008년 6월 4일 자원봉사자와의 면담)

#### 다. 교육의 장으로서의 북스타트

북스타트는 보호자로 하여금 영아에 대한 이해와 영아에게 적절한 책을 선정하고 읽어주는 방법에 대해 도움을 주었으며, 보호자들의 교육적인 요구를 충족시킨다.

책 선정을 ... 아기들이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 모르잖아요. 거기서 추천하는 책을 찾아서 보여주니까 처음에는 관심 없다가 나중에는 아기들이 좋아하더라고요.

(2008년 10월 25일 승주 어머니와 전화면담)

어머니 외에도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하여 조모들이 손 자녀를 돌보는 비율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할머니들이 손 자녀와 시간을 유익하게 보내는 데에도 북스타트 프로그램이 기여한다.

여기 집도 가까울뿐더러 여기(동네) 정말 놀아줄 만한 곳이 없어요. 놀이터가 있나. 여기 오면 힘이 들어도 좋잖아. 선생님 말씀 한마디라도 들어가면... 노인네가 뭘 알아. 옛날에는 저기(교육적인 지원) 없이 키우다가, 여기 와서 들으면서 너무 좋은 거야.

(2008년 10월 22일 예술이 할머니와의 면담)

또한 과거처럼 조부모가 손 자녀를 그냥 보호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성적인 조기 교육의 추세에 맞춰 조부모들의 손 자녀 교육 지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측면도 있다.

여기서 (아이가) 책을 많이 빌려다 봐요. OO도서관에 가서 빌려도 보지만 어떻게 엄마가 못해주니까 할머니라도 최선을 다해야지. 그래서 엄마들 틈에서 창피한 것 모르고 데리고 오는 거야.

(2008년 7월 2일 예술이 할머니와의 면담)

### IV. 영아 대상 북스타트 프로그램이 고려해야 할 문제

북스타트를 구성하는 참여자와 도서관 관계자들 모두에서 프로그램 활성화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요구들을 제안하였다. 북스타트 참여 부모나 조부모의 요구는 도서관 운영에 관여하는 인력들의 현실적인 고려를 통하여 수렴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들은 북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재정, 인력, 행정 체계 등에 있어 고려해야 할 문제점과 어려움을 드러냈다. 이러한 지적은 현장 체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다양한 요구들을 통하여 영아 대상 북스타트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 지역과 주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알 수 있다.

## 1. 프로그램의 문제

### 가. 북스타트 프로그램의 취지 이해

북스타트 프로그램을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정보관이지만, 상위 기관에서 영아를 대상으로 북스타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취지를 이해하고 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였다. 이는 예산과 관련되어 예산을 마련해주는 기관과 결정자들의 이해부족이 프로그램의 질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해 본 사람은 다 좋다고 해요. 만족도를 했을 때 99%가 만족이고 계속 참여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돈을 대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일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해서 그 사람이 투자한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투자한 효과 좋아요.... 그런데 담당자들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면 관심이 북스타트가 뭔지도 모르고 영아 대상으로 왜 하는지도 몰라요.

(2008년 6월 18일 북스타트 담당자 1과의 면담)

정보관 관계자들은 북스타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영아의 보호자들도 북스타트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그 의의를 제대로 알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다. 북스타트 프로그램은 단순히 책꾸러미를 선물하고 자녀와 책을 함께 보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목적이 있음을 이해하고, 참여에 있어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알기를 바랐다.

갑자기 인원이 늘어서 40명 오던 것이 200명이 되니까 그렇게 많이 올 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줄은 섰는데 (책 꾸러미를) 못 받아가니까 화가 나지. 북스타트에 대한 이해보다 꾸러미 못 받은 게 더 불만인거지.

(2008년 5월 28일 문헌정보관 부장과의 면담)

### 나. 책을 통한 놀이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의 제공

북스타트 활동은 가정과 연계되어 부모가 책 놀이 활동을 알게 되면 가정에서 자녀들과 다시 놀이를 해봄으로써 부모-자녀 관계 개선에 기여한다. 그런 측면에서 관계자들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책을 대여할 때 책을 가지고 놀이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제공되기를 원했다.

강동구 어린이회관이라든가, 서초 영유아 플라자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을 위해서 도어 대여를 하면서 수, 신체, 언어, 게임 등을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매체를 알려줘요.



엄마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잘 모르잖아요, 책을 읽어주는 것만 이 아니라 노래, 신체, 게임을 재미난 책을 중심으로 연결하면서 도서 대여도 하고 부모 교육도 하면서, 안내를 해준다면 어머님들이 조금 더 와 닿지 않을까 싶어요.

(2009년 1월 24일 언어강사와의 면담)

#### 다. 북스타트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

사서는 프로그램을 계획에 있어 프로그램 구성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들은 영아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론적인 것과 놀이를 혼합하여 참여도를 높이면서 만족감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한다. 사서는 북스타트 프로그램의 본래 취지를 살려 책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구성하지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부모들의 피드백을 통해 북스타트 프로그램에서 ‘책’과 ‘놀이’의 비중의 문제와 영아 대상 북스타트 프로그램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책과 연관된 것, 책 놀이 위주로 나가려고 했었는데... 우리가 전달하는 것은 책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독서, 독서를 이끄는 것을 원하는데....엄마들은 책 놀이보다는 오감놀이라든지 그런 놀이를 하고 나면 즐거웠다고 설문조사를 해도 오감놀이하고 나면 다 즐거웠대요.

(2008년 6월 18일 북스타트 담당자 1과의 면담)

북스타트 관계자들은 프로그램 실행 중이나 실행 후에 학부모들의 피드백을 통하여 다시 프로그램의 내용을 수정하며, 프로그램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도 지역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내용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반드시 책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처럼 북스타트 프로그램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우리는 사실 그런 것보다 책하고 책 프로그램하고 연관시키고 싶은데, 그렇다고 책만 가지고 나갈 수는 없고 대신에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라는 그런 쪽으로 유도하죠.

(2008년 6월 18일 북스타트 담당자 1과의 면담)

## 2. 운영의 문제

### 가. 참여 대상자의 제한 문제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이 다양한 혜택을 주기는 하지만 지속적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 기간과 연령에 대한 의견을 제기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참여자 모집 때 연령의 제한을 두고 있다. 또한 영아 대상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24개월 미만

만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제한도 있으며, 24개월 미만이라도 프로그램이 개설되는 월의 월령에 해당해야 등록할 수가 있다. 이로 인해 어머니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기되는 아쉬움은 연령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아쉬운 점은 24개월 미만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니까, 24개월이 얼마 안 남았거든. 그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것이 너무 아쉽고 더 이런 북스타트 프로그램이 연령을 더 포괄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2008년 7월 2일 중수 어머니와의 면담)

지금 이게 18개월까지 정해져서 지난번 신청할 때도 애가 18개월 조금 지나서 만약 신청하는 아이들이 없으면 해주었는데, 또(북스타트 프로그램) 받고 싶어요.

(2008년 8월 27일 유미 어머니와의 면담)

#### 나. 참여 기간의 문제

연령에 따라 참여자격이 제한되지만, 참여한다고 하여도 기간이 한 달로 짧기 때문에 한번에 충분히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보호자들은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러니까 저는 또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으니까, 문화센터 같은 곳에서는 3개월 과정으로 하니까(충분한데), 단기간에 끝나고 또 참여하고 싶으면 또 참여하는 게 좋은데 그게 안되니까 아쉽네요.

(2008년 6월 4일 예지 어머니와의 면담)

정서적인 성격이 아무래도 넓어지니까 아이들이 책을 보는 게 책을 접하면 달라지잖아요. ... 너무 좋아서 오늘 비가 오는데도 왔잖아요. 진짜 이진(북스타트 프로그램) 너무 좋은데 짧은 게 흠이야. 두 달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2008년 6월 18일 윤재 할머니와의 면담)

#### 다. 참여 인원의 문제

기간과 연령 이외에도 프로그램 참여인원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한번에 30명이 참여하는데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다보니 60명이 되었다. 교실의 면적을 고려해보거나, 영아들의 소란스러운 정도를 고려할 때 프로그램 진행시 교실 분위기가 산만해지며, 이로 인해 영아의 집중에 방해가 되거나 강사의 지도에 집중하기 어려워지는 일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인원이 많은 게 조금 아쉬워요. 저 같은 경우는 저번 달도 들었고, 이번 달도 들었어요. 인원이 조금 적었으면..

(2008년 8월 27일 어진이 어머니와의 면담)

아쉬운 점은 너무 인원이 많아요. 사람이 많아서 복잡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2008년 7월 2일 효선 어머니와의 면담)

영아 대상 북스타트 프로그램은 부모와 함께 참여하고 노래나, 춤 등 다양한 활동이 관련되기 때문에 공간이 더욱 많이 필요하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참여자와 운영 관계자들이 모두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은 영아 대상 프로그램이 질적으로 성공하는데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그룹 사이즈가 너무 커서요. 영아들 놀이 사이즈 자체가 1:5, 1:7이 적당한데 크니까 충분히 상호작용이라든지 놀이하기에 적절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1세 미만 영아 같은 경우에는 8-12개월에 할 경우에는 아이랑 노는 시간보다는 부모 교육 쪽으로 가는 곳이 더 유익하지 않을까 해요. 가정에서 어떻게 놀이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해요. 그런데 거기서는 놀이 중심으로 가야하다 보니까 개별 활동을 해야 하니까 교재 교구를 많이 싸가지고 가야하는데 저 같은 경우 어린이집에 있으니 괜찮지만 다른 분들은 재료해오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2009년 1월 24일 언어강사와의 면담)

집단의 문제는 공간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영아들은 책을 가만히 앉아서 읽지 않고 책을 보다 가 다른 책을 가져오기도 하고, 다른 곳으로 돌아다니기도 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영아들의 특성을 수용한 책 놀이 활동 공간이 필요하다.

애들이 너무 많아서 아이들 한 명당 18개월부터 24개월 아기들은 동선이 많아지잖아요. 여기 저기 돌아다니니까 그 시기 애들은 모두 자기중심적이니까 다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책을 빼앗고.

(2009년 1월 24일 책 놀이 강사와의 면담)

이와 같은 의견을 바탕으로 할 때 프로그램에 한 번에 참여하는 인원의 수를 줄여서 좀 더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 라. 인력의 문제

예산 지원 이외에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

력의 충원도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인력부족은 강사와 운영진 모두에 해당한다.

강사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프로그램을 바꾸어볼까 하는데... 지금 오감놀이도 다른 것으로 바꾸어 보려고 했어요. 문화센터 쪽 아니면 선생님들이 어쨌든 수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 시간씩 나오는 것은 도움이 안 된대요.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4-5시간을 하시고 돈을 받아가신대요. 그래서 다 거절당했어요. 한 열군데 전화한 것 같은데(중략) 협회에서 (강사를) 소개를 해주어도 그분 자체가 돈이 솔직히 안 되잖아요. 다른데 나가면 3-4 타임 기본적으로 하는데, 그래서 프로그램이 4주씩 진행이 되잖아요.  
(2009년 1월 24일 북스타트 담당자 2와 면담)

또한 강사 이외에 전담 인력의 증원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말하였다.

지금은 소수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프로그램으로 제대로 하려면 혼자서 도저히 유지가 안돼요. 제대로 하려면 북스타트 전담 사람이 몇 명 있어야 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 그나마 다행이에요.  
(2008년 6월 18일 북스타트 담당자 1과의 면담)

#### 마. 예산의 문제

북스타트 관계자는 이러한 어려움이 해결되려면 예산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왜냐하면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북스타트 프로그램에서는 단순하게 교실과 책 이외에도 영아들만의 상황을 고려한 시설과 설비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저귀를 갈수 있는 공간과 기저귀 갈이대, 영아들이 쉴 수 있는 침대, 부드러운 분위기를 낼 수 있는 블라인드나 커튼, 음악을 병행하는 활동을 위한 음향기기 등이 필요하다. 도서관 관계자는 그런 설비를 갖추는데 있어 예산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

예산이고요, 시설적인 문제. 왜냐하면 불만이 많죠. 프로그램하기에는 기본적인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다 협찬 받고 주워온 것, 재활용한 것 보면 알잖아요. 침제도 어디서 얻어온 거예요. 옆에 소파도 주워온 것 재활용한 거예요. 완전히 돈 하나도 안 들인거예요. 교실 자체가 영아를 위한 프로그램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서 아이들이 누워있을 장소도 필요하고 기저귀도 갈아주려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되죠. 가까운 곳 화장실로 가야죠.

(2008년 6월 18일 북스타트 담당자 1과의 면담)

더불어 북스타트의 핵심인 책꾸러미를 마련하는 예산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였다.

일단 북스타트를 가장 잘하는 것은 프로그램도 아니고 책이에요, 책을 확보해야 해요. ... 책 꾸러미가 몇 개 안 남았어요. 그게 끝나면 계속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책 꾸러미가 없는 상태에서 프로그램만 진행하는 것은 북스타트가 아니고 그냥 프로그램일 뿐이잖아요.

(2008년 6월 18일 북스타트 담당자 1과의 면담)

## V. 결 론

본 연구는 북스타트 프로그램의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북스타트에 참여한 영아와 부모들을 대상으로 북스타트 프로그램의 이용과 운영에 대한 질적 연구이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첫째, 영아 대상 북스타트 프로그램은 사회적 양육 지원 체계로서 기능할 수 있다. 부모들은 영아 대상 북스타트 프로그램을 통하여 영아들과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의 제공받고, 육아정보를 교류하며, 교육의 장에 참여한다. 핵가족 시대에 부모들은 양육에 관한 정보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제공받지만, 부모들이 아이들과 활동할 수 있는 물적, 인적 환경과 더불어 양육의 실제적인 지원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 결과 문헌정보관의 이용에 있어 크고 작은 불만과 어려움이 제기되었으나, 궁극적으로 부모들은 영아 대상 북스타트 프로그램에서 혜택을 받았다. 이는 도서관에서 어머니와 자녀는 그림책을 매개로 책 보기 경험을 하고,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아들은 읽기와 여러 가지 놀이를 경험하고 바람직한 사회화 경험을 하게 된다는 연구와<sup>26)</sup> 일치한다. 또한 어머니들은 책에 대해 즐거움을 갖고, 정보를 얻으며, 자녀에게 책임감과 문해를 가르치기 위해 도서관을 방문 한다는 목적과도 부합된다.<sup>27)</sup>

둘째, 영아대상 북스타트 프로그램은 역동적인 영아의 특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현대 도서관이 문화적 역할과 교육적 기능, 정보제공적 기능을<sup>28)</sup> 요구받지만, 일반인에게 도서관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조용히 해야 하는 곳'이다. 이러한 조용함은 영유아들의 움직임이라는 특성과 상반된다. 끊임없이 탐색하려는 특성을 가진 영아들은 몸을 움직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탐색하고,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고, 공간,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관계성을 인식한다.<sup>29)</sup>

영아의 입장에서 도서관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알 수는 없다. 다만, 자신이 얼마만큼 어떻게

26) J Laurice, *op. cit.*

27) Dail Alanna Rochelle Kin, *op. cit.*

28) Ethel Himmel and William James Wilson., *op. cit.*, pp.56-59.

29) 구수연, "1-2세 영아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발달단계에 따른 영유아프로그램, 한국영유아교육원교육학회 춘계 학술대회(2005), pp.43-78.

움직일 수 있는 곳인지, 탐색의 자유가 보장되는지를 탐색하는 것과 그 결과로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문헌정보관에서 제공되는 책놀이, 뮤직가튼, 식스센스 등을 통해 영아들은 감각적 탐색과 움직임의 욕구를 실현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였다. 이를 통해 영아들은 책을 탐색하다가도 수시로 주의를 돌리며, 소란한 움직임 속에서 책과 친밀감을 형성해가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문헌정보관은 공간, 시간, 자료들의 배치가 영아들의 발달적 특성에 맞게끔 영아들과 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영아 대상 북스타트 프로그램은 사람들의 관계를 매개한다. 북스타트 프로그램이 책 중심이기는 하지만, 영아 대상 북스타트에서 책은 풍요로운 인간 관계를 매개해주는 역할로서의 기능이 더 크다. 영아대상 북스타트 프로그램은 책을 중심으로 책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책을 가지고 '활동'함으로써 활동의 주체들 간에 공통의 관심사와 만족감을 갖게 된다.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영유아와 부모, 영유아와 사서, 영유아와 친구, 사서, 보조직원, 자원봉사자들 간의 관계 형성 혹은 지역사회의 노인과 영유아를 연결하는 등 다양한 인간관계를 매개하고 있음을 선행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는 영유아들에게 최선의 정신적 건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관계중심과 상호작용의 네트워크를 중요시해야 한다.<sup>30)</sup> 북스타트 프로그램이 부모의 사회적 관계망을 위해 정서적·도구적 지지를 해주는 역할을 하며, 자녀양육에 대한 조언과 기타 정보적 지원을 해주고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의<sup>31)</sup> 맥락에서 볼 때, 부모의 사회관계망의 확대를 통해 영아에게 혜택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영아에게 있어 영아 대상 북스타트 프로그램에서 책이나 놀잇감은 학습의 대상이기 보다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영아는 책의 내용을 전달하고 받기 보다는, 책을 읽어주는 부모의 목소리를 통해 따뜻함과 관심을 제공받고, 강사를 통해 생기 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접하면서 타인을 인식하고, 가정과는 다른 환경에 놓여보는 경험을 하는 것이다. 영아들은 다양한 목소리의 톤, 억양, 길이 등을 통해 다양한 감각적 자극을 받고 그 소리의 근원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된다. 이러한 사람과 사람과의 매개는 이용자인 부모와 영아만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들의 개별적인 역할 수행에서 욕구를 충족시켜주며 사회적인 역할에 대한 만족감을 주고, 이들과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에도 기여한다.

본 연구는 북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한 영아와 어머니의 경우, 어머니들과 1~2회의 짧은 면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으며, 참여관찰은 북스타트에 참여한 시간에만 수행되었기 때문에, 북스타트 프로그램을 참여한 어머니와 자녀가 가정에서의 상호작용과, 그림책 읽기 활동에 대한 참여관찰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30) D. S. Wittmer and S. H Petersen. *op. cit.*

31) 김현주, 손은경, 신혜영, 현장중심 부모교육 이론과 실제(서울 : 양서원, 2000).

## 참 고 문 헌

- 강보경. 학부모가 지각한 유아의 어린이도서관 이용실태와 부모의 요구도 조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문헌정보학과, 2003.
- 구수연. “1-2세 영아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발달단계에 따른 영유아프로그램.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춘계 학술대회(2005), pp.43-78.
- 김진숙. 부모의 어린이 도서관 이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2007.
- 김현주, 손은경, 신혜영. 현장중심 부모교육 이론과 실제. 서울 : 양서원, 2000.
- 박영애, 원효중. “어머니의 사회 관계망, 자녀에 대한 기대와 아동의 자아 존중감 및 정서 지능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제12권, 제5호(2003. 11), pp.713-735.
- 송은경. 학령전 아동을 위한 어린이도서관의 독서지도 활성화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2006.
- 윤정옥. “공공도서관의 어린이 독서진흥활동: 다른 나라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8권 제2호(2007. 7), pp.393-414.
- 이수진. 한국 북스타트 운동에 관한 연구: 부산 북스타트 운동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2004.
- 임형연. “아동교육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역할: 미국보스턴부면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관찰조사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5권, 제2호(2004. 6), pp.393-414.
- 전창호. “지역사회를 위한 대학도서관의 어린이서비스.” 도서관 제58권 제3호(2003. 가을호), pp. 27-52.
- 정혜경. “한국과 미국 공공도서관의 취학 전 어린이를 위한 ‘이야기 들려주기’프로그램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13권, 제1호(2005. 3), pp.295-320.
- Alanna Rochelle Kin, Dail. *An investigation of mother-child visits to the public library*. Nashville: Vanderbilt university. 2004.
- Albrecht, K. & Miller, L. G. *Infant & toddler development*. Louisville : Gryphon House Inc., 2001.
- Hall, Elaine. “Babies, books and ‘impact’: problems and possibilities in the evaluation of a bookstart project.” *Educational Review*, Vol.53, No.1(2001), pp.57-64.
- Heath, S. B. *Ways with words*.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 Himmel, Ethel & Wilson, William James. *Planning for Results: A Public Library Transformational Process*. Chicago : ALA, 1998.
- Laurice, J. *Reading-Encouraging Positive Attitudes: Strategies for Parents and Teacher*.

Bethesda : 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 Psychologists, 2004.

Wade, B & Moore, M. "An early start with books: Literacy and mathematical evidence from a longitudinal study." *Educational Review*, Vol.50, No.2(1998), pp.130-145.

Weinberger, J. "Longitudinal study of literacy." *Journal of Research in Reading*, Vol.19, No.1(1996), pp.14-25.

Wittmer, D. S. & Petersen, S. H. *Infant and toddler development and responsive program planning*. NewYork : Pearson, 2005.